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도,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반부터 다진다

도,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저탄소농업 키운다
3대 추진과제 24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347억 투입
친환경농업과 저탄소 인증 연결된 생산·판매·보존 전략 구성
직불금 인상·다품목 생산 지원...지속 가능 농업 도모

전북자치도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확대, 농업환경 보전을 목표로 3대 추진과제, 24개 세부사업에 347억 원을 투입, 집중 육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친환경농업인은 4만9천호로 이는 20년 5만9천호 대비 17%가 줄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6만9천여ha로 20년 8만1천여ha에 비해 16% 감소한 수치이다.

도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친환경농업인 인력육성과 품목·면적 확대, 소득보전 정책을 통

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생산기반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학교급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의 다품목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이 타 품목에 비해 어려운 과수·채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사업'을 통해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고소작업차 등의 생산·유통 시설을 지원해 벼 이외 다양한 품목으로 생산을 확대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1개소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과 지역내 생산기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금 등을 통해 관행 농업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2018년 이후 7년만에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상한(5ha→30ha)이 확대됐으며 국비 지원단가에 맞춰 도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단가 또한 동일하게 인상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확대에 맞춰 유통과 소비가 함께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 마련과 노력도 계속된다. 또한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도내 친환경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전반에 걸쳐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먹거리 구매 어려운 농어촌 '식품사막' 3대 해결책 제시

전북연구원, 식품사막와 따른 농촌 노인 건강 문제 분석
시골마을 83.6% 식료품 구매처 없어 건강권 박탈
쇼핑플랫폼 구축, 푸드뱅크 활용 식품꾸러미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7일 이슈브리핑 '농촌 식품사막 지역 노인의 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략'을 통해 농촌 식품사막화에 따른 노인 건강과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급감과 고령화로부터 촉발된 '식품사막' 현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등 전국 농도의 공통적 현안문제로 급부상해 있다. '식품사막'이란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스코틀랜드 서부에서 도입된 용어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칭한다.

전북연구원이 국내와 해외 자료를 통해 분석한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실생활 실태를 보면 노인의 절반 가까이(40.9%)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보기, 요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영양 섭취 불

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져 건강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실제 도내 행정리(5천245개) 중 83.6%가 마을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북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책임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신선식품 접근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고혈압, 비만, 심장질환 등) 유병률이 높고 불안,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고립 증상 등이 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건강카페', 캐나다의 '시니어 커뮤니티 식당', 덴마크의 '식품상자' 프로그램 등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전북 농촌 노인을 위한 건강

돌봄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 노인의 영양불균형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처방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전략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을 응용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에 설치된 무인정보 단말기를 통해 노인들이 손쉽게 식료품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 농촌 식품 쇼핑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 세 번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로컬푸드마켓, 농촌 마을기업, 농업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신선식품으로 구성된 '식품꾸러미'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한편 도는 식품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갸호호 이동장터'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내 집 앞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관 기자

김관영 지사-전북 정치권, 전북 발전 협치 강화

조찬간담회에서 메가비전프로젝트 추진·공모사업 대응책 공유
2036 하계올림픽 후보지 결정 마지막까지 협력 대응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 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해 전북의 주요 현안과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메가비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

인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중앙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내 후보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북자치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조하며 마지막 순간까

지 하나 된 힘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 메가비전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다음호는 3월 4일자로 발행 됩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무주군의의회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道,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전국 17개 시도·중앙부처 등 70여개 행정심판 운영기관 대상 포상…운영의 공정성 및 혁신성 인정받아

전북자치도가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부패방지 ▲권익개선 ▲민원·읍무즈만 등 4대 분야에 대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진행했다.

도는 행정심판 부문에서 기관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2년 ‘국민권익의 날’ 선포 이후 받은 첫 수상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고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는 도민 권익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다함께 권익!’ 실천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청구권 남용 대응을 강화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운영을 도입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건 심리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전북도 신규 임용 공무원 22명, 남원시에 기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고향사랑기부로 공직 생활 첫 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공직 생활을 뜻 깊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동지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전북자치도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의 첫걸음을 지역사회 기부로 시작했다.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 정우영 주무관을 비롯한 신규 임용 공무원 22명은 27일 남원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이들이 남원시에 위치한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임용 교육을 받으며 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감사의 마음

을 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은 “공직자로서 첫 발을 내딛은 신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기탁된 기부금은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공직자의 첫걸음을 나눔으로 시작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서울 등 수도권지역 도민회 회장단 간담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중앙회 구성 추진… “출향도민 간 협력 체계 강화·기반 조성하겠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윤석정 전북배향본부총재, 박영길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을 비롯 인천·경기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사무총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전북특별자치도중앙회(가칭) 구성 계획을 설명하며 전국 각지 출향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회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 조직 구성에 있어 도민회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북도와 출향도민회 간 협력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도에서는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전북사랑도민증과 생생장터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 등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가 전북을 방문해 활용할 수 있는 관광·체험 답례품 추가 개발과 14개 시군에 도움이 될 지정기부사업 발굴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도와 도민회는 서울장학숙을 찾아 전북에서 서울로 온 대학 신입생들을 환영하며, 젊은 세대의 참여를 통한 도민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박영길 회장은 “출향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연합회 구성을 통해 출향도민

간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정 전북배향본부 총재는 “도민회 연합회 구성을 통해 더욱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며 “전북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도 먹거리 시행계획’, 1천922억 투입·65개 세부사업 구성

전북자치도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먹거리 시행계획과 먹거리 속의기구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공동위원장), 유정기 도교육청 부교육감(공동위원장), 전북먹거리연대 이세우 대표(민간 공동위원장) 등 먹거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먹거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시행계획’은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수립한 통합 계획으로, 6대 추진전략, 18개 핵심과제, 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총사업비 1천92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농산물 수급을 분석하고 시군별 맞춤형 생산·공급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부서와 협력해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연 2회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2025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책임관(도 농



생명축산산업국장) 주재로 행정협의를 운영해 세부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먹거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먹거리 속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지난해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먹거리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같은 해 9월 열린 먹거리 속의기구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14개 시군의 다양한 계층을 균형 있게 구성해 도민 대표성을 확보하며 위크숍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먹거리 정책은 도민의 건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속의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먹거리 정책을 발전시키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박희승 의원, 남장임순 지역위 당원결의대회 개최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읍임순창)은 28일 오후 2시 30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남원장수읍임순창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탄핵정국의 비상한 시기를 맞아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유대관계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인 박 의원을 비롯 150여 명의 선출직 당직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역위원회 활동을 보고한 뒤, 박 의원이 직접 12.3 내란 이후 지금까지의 탄핵 정국과 관련된 현황을 강연한다.

이어 당원결의문을 낭독하며, 민주당원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의지를 다진다.

박 의원은 “당원과 함께 지금의 혼란을 바로 잡아 불확실성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 왕궁 생태공간 조성…국비 확보 총력

전북자치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익산시 왕궁면을 방문해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익산 왕궁 지역은 1948년부터 대규모 축산단지가 운영되면서 축산폐수,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심각한 환경 훼손이 발생한 곳이다. 이에 2023년 5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현재 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범정부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일부 축사 부지를 매입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했

지만 여전히 생태축 단절과 훼손 등 문제가 남아 있어 자연환경 복원과 생태계 기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힘쓰고 있다.

최 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도 전체의 환경개선에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어린이 보호를 위해 보호자도 함께 지켜주세요!

1. 안전한 보행 방법 알려주기

2.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모범보이기

3. 밝은옷을입혀주고,횡단보도는 함께 손잡고 건너주기

도, 논하계조사료 재배 확대…축산농가 지원 강화

전락작물직불제 연계 직불금·장려금 지원 확대…논 하계조사료 재배하면 최대 614만원 지원 ‘절감’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핵심과제 일환…축산업·지역 상생 기대

전북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락작물직불제와 연계해 직불금 및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전락작물직불제도는 논에 밤쌀용 벼 재배를 대체해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락작물이나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부터 논에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430만원에서 70만원이 인상된 전락작물직불금 500만원/ha를 지급한다. 여기에 도 자체사업으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100만원/ha 및 조사료 생산장려금 4천 원/톤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를 확대한다.

조사료 재배 확대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 16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축순

환을 활성화해 축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쌀 적정 생

산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시군,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조사료 재배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조사료 재배 확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쌀 생산량을 감소시켜 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들이 적극 참여해 경영 안정과 쌀 시장 안정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모집…청년이 선호한 일터 만든다

근무환경 개선금·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지원…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환경 조성 기대

전북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에 발굴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전북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친화(일자리) 감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글로벌 감소기업 1,000+, 벤처기업의 정부 인증·확인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보통(B-)’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수준, 고용 창출, 기업 안정성,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교육비 및 근

무환경 개선금(1천만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최대 3천만원, 1인당 1천5백만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게는 수당(1인당 30만원, 10개월)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4일까지 경진원 및 전북자치도일자리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전북자치도

일자리센터 누리집(www.1577-0365.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윤여봉 원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과 청년 취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박차’…지원사업 설명회 열어

고용유자·신규 채용 사회적 기업 대상 총 253명 최저임금 인건비 일부 지원…기업 부담 완화

전북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7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14개 시군 담당자 및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중단에 대응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마련을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25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30% 또는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12월 31일까

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존 참여기업(재심사 부문)과 신규 참여기업(신규 부문)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는 3월 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7일 18시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도 금융사회적경제과(063-280-4308)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중기청,美관세 대응 애로신고센터 운영

피해 접수 및 긴급지원…수출영향품목 특별관리 체계 도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수출피해 완화 등을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 품목을 선별해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 등 수출관련 애로가 있는 기업은 전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방문해 ‘피해·애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센터 온라인 상담실(www.smes.go.kr/exportcenter)에서 ‘피해신고’ 항목을 선택해 등록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최준호 기자

이중근 회장, 저출산고령화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출산장려금 100억 지급·노인연령 상향 제안 등 인구문제 해결 적극 행보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부터 ‘노인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영환)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영환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해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2024년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 원을, 올 해 초 열린 시무식에서는 2024년 출생한 직원 자녀 28명에게 28억 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1년 만에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반해 2024년에는 5명이 늘었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저출생 해법의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이에



이중근 회장

화답하면서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다른 기업에서도 출산 지원 제도를 잇따라 발표하며 나

비효과를 불러일으

킨 마중물 역할을 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연령 상향 제도로도 제안했다.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의 숫자를 줄이면서 총 노인 수를 2050년에도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25년 핵심과제로 선정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고 있다며 재가 임종제도로도 제안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간호대학을 설립해 노인요양, 간호, 호스피스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현존하는 인구관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구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인구부’ 신설을 위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며 부영그룹 차원의 1조 2천억 원이 넘는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사회에 2,66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실속형 스마트팜으로 농업소득 3천만원 건인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이 지난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전북농협 실속형 스마트팜’ 모델을 발굴하고 보급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업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농협 실속형 스마트팜은 농협 공선호 조직의 단독 및 연동 시설하우스에 ICT 기술을 접목해 구축한 스마트팜 모델로 온·습도, 이산화탄소(CO2), 병·난방, 창문개폐 등을 자동화하고 PC나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실시간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전북농협은 2022년 전문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전북농협은 2024년까지 농가당 2천만원 규모로 16개 농가에 보급하고 올해도 추가로 3개 농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회와 참여농협이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본부 내에 소규모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농가들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실속형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단순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집중하며 향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현대차와 손잡고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관련분야 최고 전문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결성하고, 스마트 미래 공간 조성을 위한 협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드림팀에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교통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등 관련 학회의 전·현직 회장들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림팀에서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최첨단 모



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새만금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빌리티 연결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새만금 지역의 스마트 도시 발전이 가속화되며,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세계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도시의 기본적인 구상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전문가가 제시하는 미래 도시의 모델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실무자 위한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 김점태)는 27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기업체 세무·회계담당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남지형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본법과 국제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

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 분야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 개정 사항과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와 세법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군산 문창초, 도내 첫 AI 팽톡 존…전국 4번째

AI 팽톡 활용 대화형 체험·영어 학습 공간…“학생들이 공부 흥미 느끼는 긍정적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최초로 군산 문창초등학교에 AI 팽톡 존이 설치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I 팽톡 존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 시간 또는 자유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학습 및 놀이 공간으로, 서울과 제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문창초에 설치됐다.

문창초는 지난해 EBSe 콘텐츠 활용을 통한 영어 수업 혁신 연구학교로 AI 팽톡 기반의 콘텐츠를 활용해 영어과 수업 혁신 방안을 연구했다.

이 학교 송진아 교사는 AI 팽톡 활용 수업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EBS가 주

관한 '2024년 AI 팽톡 활용 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AI 팽톡 존 설치로 학생들이 '학습+체험+놀이' 공간에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초·중·고사 대상으로 AI 팽톡을 활용한 영어 플랫폼 활용 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영어수업 내 실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 초등 영어학습 프로그램,



전북교육청은 도내 최초로 군산 문창초등학교에 AI 팽톡 존이 설치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교사 대상 수업전문성 향상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여건에 대비한 영어수업 활용

사례를 보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지역 영유아돌봄 서비스, 질적수준높아진다

전북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전주 예수병원 ‘맞손’

전북대학교 건강가정지원사업단(단장 정유진)이 수탁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병수)가 지역사회 내 영유아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종식)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5일 체결됐으며, 영유아 감염병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환경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유아 감염병 예방 교육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시설 및 가정 내 감염병 관리 교육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의료 전문 교육을 통한 아이돌봄비 역량 강화 및 영유아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



정이다.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산간 지역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표로 무주·진안 지역 아이돌봄비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가 지속적인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고·게임과학고 ‘재정 지원’ 나서

2025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 전환…수업료·입학금 등 지원 학부모 재정 부담 경감·정상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전주예술고와 한국게임과학고를 재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 수익 용기보재산 확보를 통한 학교설립 변경

인가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한국게임과학고 전체 학년이 수업료·입학금 등을 지원받고, 특수목적고에서 순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전주예술고는 신입생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재정 지원

이 이뤄지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내 지역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 아래 있던 두 학교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앞으로도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일반대학원 수소모빌리티공학과가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매스매치를 해결하고,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우석대학교 수소모빌리티공학과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혜택과 함께 지역 기업들과의 취업연계 프

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학원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PEMFC 및 DMFC 시스템 분석과 스택 제작 및 테스트 등의 현장실습을 (주)가온셀에서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대련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기업 JINDA GROUP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최신 수소모빌리티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외의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2025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 방안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북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가 1:1 대응투자로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전북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참여와 대응투자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덧붙여 실효성 있는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단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을 도내 14개 전 지역으로 확대 구축하기로 하는 등 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총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할 예정이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부안·순창·남원·정읍 도내 4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72억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개 지역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2025년에도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지난 1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48억원을 교부

받았고, 지자체 대응투자 예산과 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한 총사업비 936억원을 들여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각종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최성민 기자

화재발생 원인 1위 “부주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담배꽂초는 불이 꺼졌는지 확인!!

화기는 항상 꺼져있는지 확인!!

쓰레기 소각및 논밭 태우기 금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익산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펼친다.

익산시는 내달 11일까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1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10명 중 5명은 시민단체 추천자, 5명은 시민참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선정한다. 시의원 2명과 행정 공무원 3명을 포함해 15명으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시정발전에 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시민참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정책토론회에 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시민참여에 관한 경력이 있는 익산시민으로, 시민단체 추천자의 경우 익산시에 등록된 비영리 시민단체만 추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추천서와 신청서, 증명 서류를 준비해 기획예산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063-859-50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임업직불제 신청기간 확대… 내달부터 신청 가능

정읍시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 신청 접수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임업직불제는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신청 기간이 기존 보다 1개월 연장돼 총 2개월간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익산시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7일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해 민간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은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주택임주 장애인에게 최대 21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설 장애인은 시설 퇴소 시 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지원되는 반면, 재가 장애인은 의지가 있음에도 지원금이 없어 자립을 위한 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장애인의 일시적 보증금 부담을 낮춰 원활한 주거이전을 돕고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재원은 후원을 통한 주거지원 기금으로 마련되며,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협약을 통해 주거지원 기금 조성과 운용은 장애인복지관이, 보증금 지원과 상환 절차는 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하게 된다.

김민수 경제장제인과정은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보증금 지원사업이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우수'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혁신 성과창출 기여… '기관장 혁신리더십' 돋보여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혁신 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 지표를 정성·정량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혁신역량 ▲현장 중심 소통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행정 효율화 등으로 구성됐다.

군산시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부문에서 강임준 시장의 주도적인 혁신 추진과 소통 행정이 돋보였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속의 정책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정책장터 '우리들의 군산' ▲시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는 '시장'이 찾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가는 열린 특엔톡' ▲전 직원과 소통하는 '시장과의 직통대화 당.나.귀' ▲저연차 직원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티 군산'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조직 내 혁신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군산시는 성과관리 체계 개선으로 행정 혁신역량을 강화했으며, 혁신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 군산시는 '군산시 혁신 주니어보드(정책반울림)' 운영을 지속하며,

혁신 우수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변화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곤충산업 지원...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지원 조례 통과... 곤충산업 농가 육성·기술 교육·유통 지원 확대 등 정책 추진

정읍시가 곤충산업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난 19일 정읍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정상철 시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곤충산업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

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식품·사료·애완·화장품·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지속가능 생물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년 3월)에 따르면 국내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2019년 기준 2535개소로, 2012년부터 연평균 21.8% 성장했다. 판매액도 2015년 162억원에서 2019년 40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읍시에는 35개 농가에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갈

색거저리(밀웬), 동애등애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은 체형·애완용, 사료용 등으로 농가·개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국내외 곤충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육성하고 기술 교육과 유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곤충산업은 미래 먹거리,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의약, 학습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라며 "곤충농가의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농업경쟁력 이끌 농촌지도사업 본격 추진

청년농업인 선진농기술 도입·기후 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미래 농업 대비 사업 진행

익산시는 지난 27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고, 총사업비 61억 원 규모의 75개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319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인 선진농기술 도입 ▲밀·콩 작부 체계도입 ▲기후 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청년 농업인 농기계 자율 주행 기술도입 ▲귀농인 소득 사업 및 생산 기반 지원 등 청년농업인 정착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됐다.

시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평



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더욱 완성도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확정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급과 지역특화작물 발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외국인근로자이탈률5%미만...우수지자체 선정

올해 188개 농가 외국인 근로자 830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농가 인력 운영 부담 경감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는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고용주당 2명의 추가 인력을 배정받는 인센

티브를 획득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해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해 일일 단위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읍 문화탐방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착을 돕고 농가와 근로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188개 농가에 830명을 배정해 더 많은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청년플, '로컬 히어로' 모집

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사업참여자모집...최대1,000만원 지원

군산시 청년플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2025 로컬 히어로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창작자 발굴을 위해 추진된다.

지역 창작자(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에 따라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지역 가치 ▲지역 먹거리 ▲지역 기반 제조 ▲지역특화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체험 ▲자연친화 활동의 7대 유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시에서는 6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며, 재료비, 이륜차(브랜딩), 마케팅, BM 구축화 등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내달 17일까지이며, 청년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인 (예비)창업자 중 ▲지역 창작자(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만족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5년 미만의 기창업자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플 누리집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통근버스 올해도 달린다

통근버스 4대 운영...도비 4,800만 원 지원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도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에 이어 출퇴근 시간대에 통근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도비 4,800만 원을 지원받아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출근 버스는 오전 ▲7시 ▲7시 30분 ▲8시 10분 ▲8시 15분에 원광대병원 맞은편에서 출발한다. 보건소, 홈플러스 사거리, 전자랜드 사거리, 포레나

사거리, 부송우남아파트, 팔봉기안아파트를 거쳐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향한다. 퇴근 버스는 오후 ▲5시 10분 ▲5시 40분 ▲6시 5분 ▲6시 15분 산단 입구에 있는 씨앤씨(CNC)커피부터 관컴피너까지 산단을 순환한 후 출근 노선의 역순으로 운행한다.

통근버스 시간과 노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소아응급환자 연중무휴 진료체계 구축

키움병원, 내달 4일부터 심야·휴일 소아 진료 시작

군산시가 지난 27일 키움병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윤영욱, 박신영, 황민우 키움병원 공동대표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 군산시 보건소 성낙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아 청소년 환자의 야간 진료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앞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와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과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현재 군산시는 16개소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평일 저녁8시 이후에는 외래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움병원은 내달 4일부터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1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필리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을 직접 선발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난 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마갈레스시와 나익시를 방문해 현지 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면접은 시와 샘골농협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 인적사항, 가족관계, 건강상태, 농업 종사 이력, 기초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인력을 선발했다.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전까지 기본 한국어 교육과 농작업, 한국 문화·식생활 요령, 무단이탈 시 불이익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입국 후에는 근로 시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 인권침해 예방 등 사전 교육을 거친 뒤, 외국인 등록 등 필수 절차를 마친 후 농가에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특정 농가가 아닌 여러 농가에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가별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고 근로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올해 준공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부안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00억 확보

공항마리나항만~격포항 일원, 크루즈 해양관광산업 거점으로...시너지 효과 기대

부안군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사업에 선정돼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형1 사업은 재정지원과 민간투자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동적 경제거점인 어촌 경제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은 공항마리나 항만과 국가 어항인 격포항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기반으로 민간투자사업인 공항마리나항만과 격포항을 연계해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항마리나항만과 격포항 일원을 환아시아권 크루즈 해양관광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에도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부안의 풍부한 해양관광



부안군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사업에 선정돼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원을 활용해 해상교통 및 해상레저 중심의 6차 산업화를 추구하고 지역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 사업과 더불어 그동안 격포항 일원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된 격포항 정비사업, 클린 국가 어항(격포

항) 시범사업, 변산·궁항 어촌신활력(유형2) 사업에 총 113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총사업비 4억원 투입...청년 최대 3천만원·신혼부부 최대 5천만원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추진됐다.

사업비는 4억으로 약 10세대 대상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새로운 보증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움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세대 당 청년 최대 3천

만원, 신혼부부(1자녀 가구 이상)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지난 1월 1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 18세 ~39세 이하 청년 한 해당되며, 지난 1월 1일부터 공급주체와 임대계약 체결한 신규 계약자 및 입주자이다.

단, 지난 1월 1일 이전에 공급주체와 임대계약을 체결 후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내달 12일부터 건축과(540-3269)에 신

청 가능하며,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읍면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더 나은 내일을 꿈 꿀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인천공항까지 고속버스로 한번에 간다

금호고속, 3월 10일부터 하루 2차례 인천공항 行 운행 확정

내달 10일부터 고창군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27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금호고속이 내달 10일부터 고창군공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운행을 확정했다.

해당노선은 고창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차례(저장 0시10분, 오전 9시50분)에 출발해 정읍과 김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향한다.

인천공항에서의 출발시간은 제2터미널(아침 7시 30분, 오후 5시), 제1터미널(아침 7시 55분, 오후 5시 25분)에 있다.

고창에서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으로 곧장 가는 버스노선이 없었다.

해위를 나가려는 군민들은 무거운 짐을 끌고 인근 정읍이나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주민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고창-인천공항행 노선 신설을 건의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인천공항 노선버스 운행으로 군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요구에 맞게 이동권을 보장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국립수목원, 지역 식물 특성화사업 공동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의 자생 식물 보전 및 정원소재 활용 협력을 위해 27일 부안군청에서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안 지역에서 자생하는 위도상사화, 변산바람꽃, 변산향유, 미선나무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 공동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위도상사화는 1996년 부안 위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뒤 부안을 대표하는 희귀·특산식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법을 개발했고 부안은 매년 늦여름 위도에서 위도상사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생식물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군과 국립수목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국가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 식물을 활용한 정원소재 개발 및 전시·홍보를 통한 지역 홍보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지역 대

표 식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브랜드화,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해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식물자원화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지자체 평가 최상위...고창군 혁신정책 주목

‘데이터기반행정평가’ 등 행안부 각종 평가 휩쓸어

고창군이 ‘지자체 혁신평가’, ‘데이터 기반행정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행안부의 각종 평가를 휩쓸면서 민선8기 심덕섭 군수의 혁신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자체 혁신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8년 평가 시작 이후 첫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다.

고창군은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주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했고, 전년도 39위에서 무려 36단계가 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서 전날에는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전북 14개 시·

군 중 유일하다.

또한, 지난 4일에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평가는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2단계나 끌어올린 것으로,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에서 만점을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중앙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특교세 확보나 현안해결은 물론, 지역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이점이 있다”며 “올해도 지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우수한 미니씨감자 분양...농가 소득 증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해마다 감자재배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무병 미니씨감자를 분양, 제공하며 농가들의 90% 이상이 무병 미니씨감자의 품질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24명의 감자재배 농가에게 고품질 무병 미니씨감자 3품종을 10kg 내외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마다 우수한 품질의 무병 미니씨감자를 분양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790kg, 38,449개를 424명의 감자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감자 종자퇴화 방지와 순도 높은 씨감자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무병 미니씨감자는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조직배양해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액재배 온실에서 분무수경 방식으로 생산했다. 이를 분양받아 농가에서 재배할 경우 30% 이상의 수확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2차 증식 후 전체 700ha 이상 면적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시는 무병미니씨감자를 보급해 연간 재배농가의 감자종서 구입 비용 15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제지역에 적합하고 시장 선호도에 맞는 신품종을 선정해 미니씨감자 분양 품종에 포함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성과평가 ‘우수’

고창군은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문화부는 지난날 전국 24개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균형발전 성과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고창군은 23년도에 이어 24년도에 ‘우수’로 선정돼 법정 문화도시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2024년 주요 성과로는 고창군 14개 권역 내 141개 문화공간 발굴, 1,402건의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약 7만5천여 명의 문화도시사업 참여자 등이 있으며, 사람·문화·공간을 연결해 문화도시 2년차로서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구현해냈다.

이문식 센터장은 “앞으로도 고창의 고유한 문화자원인 유네스코 세계유산과의 문화적 연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상거래 질서 확립 불법 위조 상품 합동단속 실시

부안군은 지난 26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위조 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5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방집, 액세서리, 금은방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 유통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할 계획이며 시정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위조 상품 금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19개 읍면동 ‘소통의 날’ 성료

정성주 김제시장이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에서 김제시민 2천여명의 발길이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

27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9개 읍면동을 찾아 실시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2025년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300여 건의 접수된 건의사항

은 시 관련 부서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 파악한 후 처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질문 하나하나를 경청하며 세심하게 답변하며 소통하는 정성주 시장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읍면동 순회 여정을 통해 현장에서 전해 들은 시민들의 의견은 시정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며 “건의사항은 카드화에 완료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민생안정금, 사용처 대폭 확대

‘경제적 승수 효과’ 위해…3월 1일부터 사용처 관내 전 사업장서 사용 가능
읍면지역 거주 어르신들 소비 불편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견인’ 기대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등 시민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시가 경제적 승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사용처를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남원시는 탄핵정국에 따른 민생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그 일환에서 올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 시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까지 7만5,862명에게 총 228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지난 25일 기준 159억 원이 사용, 골목상권으로 지원금이 빠르게 유입, 순환되는 등 영세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효과가 단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이어지자 시는 민생지

원금의 취지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는 그간 대형마트와 하나로 마트 등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 사용 제한까지 풀고, 관내 전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시내권에 비해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소비 불편함을 개선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는 지원금 시행 효과가 수혜자 중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다각적인 사용방안을 위해 선화한 맞춤형 대안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는 농촌 지역의 소비 거점 역할을 하는 농·축협 하나로 마트 등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이 대폭 해소되는 것은 물론 사용률까지 높아져 경제적 승수효과로 이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흥업과 사행성업, 도박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은 종전과 같이 사용이 제한된다.

최경식 시장은 “민생안정 지원금이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 해소 등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실효성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하는 승수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32억원 규모의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와 최경식 남원시장의 강한 의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충당됐으며, 민생안정지원금

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벙스코 드론쇼코리아 ‘남원시관’ 운영

드론 레저 특화 선도도시 남원 및 DFL 홍보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벙스코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인 ‘2025 드론쇼코리아’에서 드론 레저 특화 선도도시 남원 및 DFL 홍보를 위한 남원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0회째인 드론쇼코리아는 드론에 대한 모든 것, 드론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자원

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주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국, 306개사 1천130부스에 1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이다.

남원시는 지자체관에 참여해 드론 레저 특화 선도도시 남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 남원시의 드론 산업 전면을 홍보한다.

특히 남원시의 대표적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 프로젝트로 개발 추진 중인 DFL(Drone Formula League:국도교통부에서 상용화 사업으로 개발한 국산 기체 활용 드론 레이싱 대회) 내용 및 관련 기체 전시를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제1차 안전관리위원회 열여…축제 안전 대비

완주군이 안전한 완주군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6일 제1차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안건은 2025 완주군 안전관리계획, 2024 완주군 재난관리실태공시, 완주 삼례팔기축제, 모악산웰니스 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총 4건으로 위원들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관한 조치대책 등 최종적인 안전관리계획(안)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마쳤다.

2025년 완주군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목표로 수립하며, 올해 3개분야(자연, 사회, 공동) 33개 유형별 대책이 포함된다.

재난관리실태공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3에 의거, 지자체의 재난관리실태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보 공고 또는 홈페이지 게시로 알리게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완주군 지역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관람객 동선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365일 모두가 안심하는 완주군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계약체결시 업체 제출 서류 13종→1종 ‘대폭 간소화’

남원시는 각종 계약체결 때 지역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서류 13종을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업체로부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계약각서, 청렴 이행각서 등 모두 13종의 서류를 받았다.

이로인해 계약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해 일부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고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간소화로 복잡한 계약서류 작성에 따른 지역 업체의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속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임업직불금 신청 3월 1일부터 접수

완주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금 전 화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치유체험농가 참가비 지원…관광 활성화 모색

참가보상비 최대 4만5천 원 지원… 개별·단체 관광객 대상 확대

순창군이 농업·농촌 치유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체험농가 참가보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체험 관광객을 대상으로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지역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및 지역 거주자로, 개별 여행객뿐만 아니라 여행사, 학교, 코레일 여행센터 등을 포함한다. 체험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는 체험비와 농가맛집 이용비 일부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체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일 체험의 경우 참가비의 50%(최대 1만5천원/인)가 지원되며, 1박 2일 체험의 경우 30%(최대 4만5천원/인)까지 지원된다. 또한, 체험객이 1일 최대



순창군이 농업·농촌 치유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체험농가 참가보상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개소 체험을 진행할 경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군에서 지정한 농가 중 방문할 농가와 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해당 농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농가는 순창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자원팀(063-650-5133)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주)알트론 임금체불 해결 적극 나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관내 기업 ㈜알트론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유동기 ㈜알트론 대표, 권창업 한국노총 알트론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군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도(道)·군(郡)·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 요구와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알트론은 코로나19 시기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적 요인과 완성차 산업의 반도체 수급난으로 원청 납품이 지연되면서 임금과 퇴직금이 수개월째 체불되고 있다.

현재까지 체불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 등 약 100억 원에 달하며, 일부 노동자들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완주군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



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노동자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경영 안정화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10억 규모 융자 지원

연중 수시 접수…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순창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업무성장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대출이자차액(4%)을 보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융자액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융자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재료

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한도로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은 순창군 내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금융기관 여신 운용 규정상 대기업 계열이 아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융자 승인 후 미상환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

량거래 업체로 규제 중인 기업, 행정상 제재를 받은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협은행 순창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남원 소재 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4) 또는 각 융자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순창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상반기 총 9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 전기승용 50대, 전기화물 40대를 포함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1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등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전기택시 구매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차상위 이하 계층,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자,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은 국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제1기 대학생 SNS 홍보단 26팀 발대



남원시는 지난 26일 남원시 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95회 춘향제, 대학생 SNS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신설한 대학생 SNS 홍보단은 기자팀 11팀, 영상 콘텐츠팀 15팀 등 총 26팀이 최종 선발됐다.

대학생 SNS 홍보단은 지난 2월 9일부터 약 2주간 전국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최종 선발됐다. 3명의 외국인 대학생이 포함됐고, 전국 24개 대학교 대학생 34명 총 26개 팀이 제1기 대학생 홍보단으로 임명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一事一言〉



한국인의 ‘우리주의’와 국민항쟁(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국민항쟁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감동시킨 것 중의 하나는 나눔 문화이다.

항쟁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집회 장소 근처의 카페나 식당 등에도 선결제를 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었다. 농민들의 행진로를 차단한 경찰로 인해 다소 급박하게 시작하게 된 남태령 항쟁에서는 그곳으로 배달음식을 보내주었고, 추운 날씨를 걱정하여 항쟁자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난방버스를 보내주기도 했다.

이러한 나눔 문화는 80년의 광주항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은 항쟁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고 나누었다. 가게 주인들은 매대의 물건들을 무료로 제공했고, 택시 기사들은 항쟁자들을 그냥 태워주었으며, 평소에는 공동체와 무관한 삶을 살았을 어깨 들조차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나눔 문화는 가족, ‘우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통속적으로 말해 ‘우리’란 곧 화목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나누며 서로를 알뜰히 챙겨준다는 것이다. 특히 식구(食口)라는 말이 보여주듯, 가족은 한술밥을 먹는 사이여서 항상 상대방의 밥을 챙겨준다.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식사와 관련된 인사말 혹은 사교말을 애용해 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제가 다음에 식사 한번 모실게요”라고 말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조만간

밥 한번 같이 먹자”는 인사를 건넨다. 타인들을 대상으로 가족 내에서만 사용할 법한 인사말을 적용해온 것은 한국인들이 한 가족, 즉 ‘우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하거나 나누어야 하고 서로를 돌봐주면서 서로의 식사까지도 챙겨줘야 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출이 바로 국민항쟁에서의 나눔 문화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사상가들은 사람들이 모여 군중이나 집단이 형성되면 야수성, 폭력성 등을 드러낼 수 있다면서 경계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거대한 시위가 빈번하게 약탈과 방화 같은 범죄를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위대가 상점을 털다든가 주차된 차량에 방화를 해서 큰 시위가 끝난 현장이 마치 폐허처럼 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책임감이 분산되어 폭력 같은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국민항쟁은 이런 주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국민항쟁에 참여하면 평소보다 오히려 덜 흥분하고, 덜 폭력적으로 되는 반면 더 도덕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은 거대 집단을 이루었을 때 평소애 쌓인 개인적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시키곤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를 분노, 증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국민항쟁을 통해 거대 집단을

이루면, ‘우리’가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기쁨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젖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은 흥이 많은 민족이다. 한국인의 ‘흥’이라는 주제를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흥이 나는 것은 ‘우리’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면 흥이 난다는 것이다. 술자리를 통해 하나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 기분이 고조되어 기어이 2차, 3차를 하려고 하는 것, 좋아하는 가수(공동의 사랑의 대상은 공동의 목적과 유사하다)의 공연장에서 하나 된 느낌을 받으면 끝없이 떠창을 하며 즐거워하는 것 등은 ‘우리’가 되었을 때 체합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바로 ‘흥’임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국민항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절하고 두려운 싸움이다. 그러나 막상 국민항쟁 현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너무나 기쁘고 흥겨워한다. 국민항쟁의 현장은 일상에서는 잊고 있었던 ‘우리’를 되찾은 곳이자 그 ‘우리’가 주인이 된 우리 세상, 해방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의 국민항쟁은 분노나 증오 등이 아닌 기쁨과 행복감 등이 지배하는 흥겨운 축제 마당이 되곤 하는 것이다. 과거의 동학농민항쟁이 그랬고, 80년의 해방광주가 그랬었으며, 오늘날의 국민항쟁이 그렇다.

한국인을 대표하는 민족심리가 ‘우리’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우리’가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

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거나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붕괴되어 홀로 살아가는 것, 동료나 이웃들과 갈등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화 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자살률이 세계 1위로 치솟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한국인들을 개인으로 갈라쳐서 ‘우리’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기를 열망하며 ‘우리’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대개혁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복원,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한국 사회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고, 각자 도생의 개인 간 생존경쟁과 서열 경쟁을 강요하는 오징어게임을 중지함으로써 모두가 ‘우리’가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끝>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변명, 기만, 남 탓 - 윤석열의 최후 변론

윤석열의 최후 변론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변명과 거짓 선동으로 점철됐다. 12월 3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내란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는 데 급급할 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가 단순한 호소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꾀변에 불과하다. 계엄이 단순한 호소라면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선관위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은 명백히 평시였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정치적 갈등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처럼 윤석열의 주장은 법적, 논리적 근거가 전무한 자기당착적 꾀변에 불과하다.

더욱이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절차마저 무시했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윤석열은 이를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을 동원, 국회를 강제 점거하려 한 시도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내란 범죄다. 윤석열은 최후 변론에서 계엄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 기만적 주장이다. 계엄령이 발효된 이후, 수많은 시민과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이 체포와 구

금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았다.

비상계엄의 공포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윤석열은 계엄령과 함께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조치를 내렸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며 선출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함으로써 독재 체제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또한 법관들의 체포 및 구금을 기도하며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반국가적 내란 범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변명과 왜곡, 남탓으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는 계엄령이 국가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변했으나 이는 명백한 권력찬탈 시도였다. 더구나 그의 변론에서는 정체불명의 ‘반국가세력’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국민을 갈라치려는 선동적 발언이 이어졌다.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순간을 맞았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송두리째 짓밟은 반역 행위이며 그가 계속해서 권력을 탐하며 복귀를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궤멸할 것이다. 국민을 억압하고 헌정을 파괴한 독재자의 말로가 어퍼해야 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현재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담보하는 길이다. 현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요시선

참 아름다워요 / 송도정태천

직장에서
평생사고없이
생활해온당신
참 아름다워요

주최장에서
떨쳐나옴거나
늘옴으며안내온
당신참아름다워요

무대에서
혼신의힘을다해
온몸으로공연해온
당신참아름다워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씨투에스금융디자인 대표이사
시집 3권 발간
CHEZ·NOUS 301과 팔칼국수,여백의미
(에스24에서 구입가능)

독자광장

변화하는 시대, AI와 공존해 살아가기

지난해 12월, 비디오 생성형 AI sora가 정식 출시됐다. 이 기술은 고품질 비디오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 AI 비디오 생성 기술이 마케팅 및 광고 업계 등에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해 기업 및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작 여건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말에는 X(구 트위터)에서 AI 이미지 생성을 활용한 사례가 화제였다.

바이럴 게시물을 올렸던 한 과일 판매 온라인몰이 AI를 활용해 상세페이지에 농장 풍경과 가상 인물을 구현해 사용했다.

이 가상 인물과 풍경은 언뜻 보면 실사와 착각할 만큼 구현률이 높아, 많은 유저들에게 충격을 안

겨주며 한동안 화자됐다.

어쩌면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은 어떤 직업군에게는 인력 대체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내가 가진 능력에만 안주하지 않고, 선제적 학습을 통해 AI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보다 더 풍부한 작업물을 만들어내고 자기 계발을 해낼 수 있는 위기 돌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AI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하며 실용 도구로 자리잡았다.

예컨대, 보통 3시간이 걸리던 블로그 포스팅 작업은 AI를 활용하면 30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이미 많은 학생과 취준생들에게 AI는 과제와 이력서 작성에 거의 필수적 도구가 됐다.

AI는 업무 시간의 절약과 생산

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앞으로 더욱 대중의 삶에 밀접해질 도구다.

그러나 이 AI라는 도구의 효율성은 사용자의 활용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

AI는 프롬프트 입력이 결과물 도출의 핵심이며 전부가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사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창의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품질이 달라진다.

따라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찾아 본다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해 전주 지역에서만 해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시평생학습관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AI 콘텐츠 제작 교육

를 진행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전 책과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AI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심화 활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뤄서 누구나 AI를 자신의 업무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성형 AI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 기술의 단순한 수혜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넘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우리는 모색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때로 우리 인간의 토대를 흔들지만 또한 새로움으로 나아가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우리는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김은지 기자

문화재열전



성흥사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 2021년 12월 24일

-소재지 - 고창군 성산면 오성로 134-16

-시대 - 조선시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02.28 2025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열린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종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익산지국 010-9560-3075	장수지국 010-8626-6049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 쾌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기업 경영 안정 지원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적 맞춤형 지원으로 탄탄한 기업 경쟁력 제고
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투자유치 탄력 기대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100%, 황무지에서 쓴 김제시 경제 신화

.....
김제시(시장 정성주) 지평선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연장되며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21일 지평선산업단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연장 지정으로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26일까지(2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기술개발(R&D) 지원, 제도약 컨설팅 등 정부 사업에서 우대지원을 받게 되어 지평선 산단 입주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
◆선제적 위기 대응! 경영 안정을 위한 큰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평선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10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2차 연장을 거쳐 지난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수출 부진 및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지역 경제 전반이 위기를 맞게 되면서 김제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했으며 조사단의 현장 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2년 연장이 결정됐다.

특히, 선제적 위기 대응 및 탄탄한 기업 경쟁력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인력공급 안정적 지원, ▲기업 소통강화, ▲연구기관 연계 기술개발 촉진, ▲경영안정 지원, ▲전북도 광역산업 연계 중장기 발전 방안 등 8대 전략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관계 부처 등에 지평선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과 김제

시가 원팀으로 뭉쳐 전력을 다해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투자유치 탄력 기대

지자체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평선 산단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은 우수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해 2개동 4층 규모를 자랑하는 제2 표준공장이 내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는 생산설비 설치만으로 빠른 제품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내세워 자유무역관리원과 함께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지평선 산단 내에 최대 42개소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4층)가 조성됨에 따라 창업·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로 활용에 나갈 계획이다.

◆지평선산업단지분양률 100% 달성 황무지에서 쓴 김제시 경제 신화
지평선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1월

품업체인 ㈜일강의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성원타이어씨가 분양(임주)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머드급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됐다.

이렇듯 100% 분양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한몫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민간아파트 732세대, LH 행복주택 120세대 등 미니 신도시급의 새로운 주거공간까지 갖추게 되면서 명실공히 활력이 넘치는 산업 도시로 자리 잡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라는 바람으로 일궈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을 꼼꼼히 살피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평선 제2산업단지, 백구 특장차 2단지 등 수요 맞춤형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우수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일류 경제도시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온봉기 기자

